

세계 유일 국제무형유산 시상식 개최

전주시, 세계 각국 무형문화유산 보호·발전 개인·단체 시상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호주 우드포디아·미국 난민 위한 예술단체·키르기스스탄 농촌진흥기금 3개 단체 수상

호주의 우드포디아(Woodfordia Incorporated)와 미국의 난민을 위한 예술단체(Art for Refugees in Transition), 키르기스스탄의 농촌진흥기금(Rural Development Fund)이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3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일 오후 5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2023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호주의 우드포디아, 미국의 난민을 위한 예술단체, 키르기스스탄의 농촌진흥기금 등 3개 단체가 수상을 받았다.

전주시는 지난 2일 오후 5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안형순 국립무형유산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무형유산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들 3개 단체를 시상했다.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40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가 세계 각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온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유일의 국제무형유산상으로,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국제 공모에 응모한 30개국 40개 팀을 대상으로 한 적격 여부 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 후보자 검증 등을 거쳐 △호주의 우드포디아 △미국의 난민을 위한 예술단체 △키르기스스탄의 농촌진흥기금의 3개 단체가 수상하게 됐다.

수상 단체 중 호주의 우드포디아는

원주민과 디아스포라 사이의 언어·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무형유산을 보호·활성화하는 대표 조직으로, 현재 다양한 민속축제와 장인 캠프 등을 개발해 토속문화를 보존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난민을 위한 예술단체는 전세계 난민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전통예술 및 공예품을 중심으로 난민 단체의 무형유산을 활성화하고, 세대 간 교육을 통한 무형유산의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농촌진흥기금은 키르기스스탄의 빈곤퇴치와 장기농촌개발을 목표로 지역주도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의 무형유산 보유자들과 협력해 젊은 세대에겐 전통 지식을 비롯한 각종 무형유산을 보존·부흥·전승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써왔다.

이들 대상 수상단체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옷칠장 이의식 보유자가 제작한 상패와 함께 각각 1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무형유산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구대식 전주시설공단 이사장, SNS에 게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 Challenge)'에 동참했다. 공단은 지난 1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한 전주시설공단 구대식 이사장. <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게시물에서 구대식 이사장은 플라스틱에 작별을 고하고,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시작한 환경 보호 캠페인이다.

'안녕(Bye)'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탈플라스틱 실천 각오 등을 담은 게시물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 2~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챌린지가 이어진다.

공단은 익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수)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중해)을 지명했다. 공단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2022년 1월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고, 에너지 자립화를 핵심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각 부서별로 플로깅과 환경정비 봉사활동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들이 머그컵이나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 "건강한 지구를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제17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개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학습도시인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공부해온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부지에서 '제17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가 열린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는 지난 4월 철거 완료 후 현재 문화행사 및 시민축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사진 행정철차 등

을 거쳐 전주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곳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움의 축제를 열게 됐다.

시민들과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 향유를 위해 마련된 올해 한마당 행사는 '평생출판, 전주연(Learn)'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전주지역

학습자와 강사, 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학습 성과를 공유했다.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한 90여 개의 평생학습 입문 체험과 30여 팀의 공연 등 120여 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 첫날인 2일 오전 11시부터는 개막행사로 한 해 동안 평생학습을 위해 애쓴 평생학습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또,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배움을 실천하는 다양한 세대들이 자신의 성과를 뽐내는 공연도 펼쳐졌다.

이어 이틀간의 이번 축제 기간 동안 △90여 개 전주 평생학습 기관·단체가 참여한 홍보 체험관 △전주시민사회단체(NGO) 홍보체험관 및 캠페인

△전주시 평생학습 강사 한마당 등 전주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알려줄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첫날 늦은 오후에는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의 평생학습 밴드 동아리의 발표공연과 더불어 청소년 댄스팀의 초청공연도 펼쳐져 시민들에게 가을 밤의 추억을 선사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을 통해 학습으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아이비모터스 전주전시장, 500만원 상당 백미 기부

아이비모터스(주) 전주전시장(대표 강병철)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백미 1.95tkg을 전주시에 기부했다.

기부한 백미는 아이비모터스(주) 전주전시장이 확장 이전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축하 화환을 대신해 받은 것이다. 기부된

백미는 전주지역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병철 아이비모터스(주) 전주전시장 대표는 "전시장 확장 이전을 축하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고마운 마음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축하 화환 대신

백미를 받아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기업의 나눔이 취약계층의 이웃에게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비모터스(주) 전주전시장은 지난 2014년 전북지역에 처음 문을 연 불보자동차 공식 딜러로, 이번 확장 이전을 계기로 질적인 성장을 목표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투자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 개최

11월 4일까지 소비 활력 불어넣기 위해 7개 골목상권서 진행

장기화된 경기 불황의 여파로 침체된 전주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3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 7개 골목상권에서 골목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제3회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에 소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 골목상권 7개소에서 각 골목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골목상권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기획한 소비 촉진 행사와 더불어 문화예술 공연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의 시작은 3일부터 8일까지 덕진동 하가지구에서 진행되는 '전북현대 후원의 거리 드림축제'가 포문을 연다. 축제 첫날 덕진동 전북은행 뒤편(추진로 6 옆) 주차장에서는 K리그 전북현대모터스와 제주유나이티드의 프로축구

K-리그 경기의 거리응원이 펼쳐진다.

이어 오는 8일에는 오후 7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하가지구 CS25 앞 공원(덕진동 688)에서 전북 현대 선수 3명의 팬 사인회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이날 오후 6시부터 식전 버스킹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골목상권 드림축제는 하가지구에 이어 △혁신동 대방대입시터 상가(10월 14~15일)의 '해피패밀리데이 드림축제' △전주대 평생교육원 주차장(10월 20~21일)에서 열리는 'Hip 드림축제' △에코시티 공영주차장(10월 21일) '에코시티 드림축제' △혁신동 기지제 수변공원(11월 4일)의 '백부더 1900s sing with 드림축제'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고 활력을 되찾는 데 이번 축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지쳐있는 시민과 상인들에게 위로와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겐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